

우한 폐렴과 중국 기독교 박해: 하나님의 심판

성경말씀: 대상21:1-14

주님의 은혜, 기도 덕분에 미국 여행 잘하고 음, 이 기간: 우한 폐렴 창궐, 전 세계 700여 명 사망, 확진자 35,000명, 중국 76개 도시 봉쇄, 4억 명 이동 제한, 2019년 12월 30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폭로, 정부 탄압, 의사 리원량(34), 폐렴으로 사망

미국, 캐나다 거리 국내선 공항 평온하다, 그런데 국제선을 타는 데는 주로 동양 사람들 마스크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마스크 없이 일상 업무, 금요일 저녁 인천 공항, 매우 한가함, 택시 기사: 손님이 없다. 여하튼 세계적인 비상사태, 일단 정부의 담당 기관이 철저하게 분석, 국민 보건 강화 정치적 이슈를 떠나 정부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차분히 생활하자.

목사로서는 이런 악성 질병을 보면서 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때, 말세지말

특징(눅21:11): 자연 재해, 지진, 우박, 역병 등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들, 물론 대다수가 7년 환란기에 발생, 그러나 그 전에도 경고의 징조로 존재한다. < >

자연 재해를 보는 우리의 눈

자연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가? 2020년 2월 7일 크리스천투데이, 김민호 목사

연일 자연 재앙에 대한 뉴스가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호주는 6개월 넘도록 엄청난 산불로 목살을 앓고 있다. 피해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에 골프공 크기의 우박과 홍수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뿐만 아니다. 얼마 전엔 1.5m 크기의 박쥐 30만 마리가 지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재앙의 문제는 호주만이 아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재앙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정당할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라고 본다.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주장 한다. 동성애와 기독교 박해와 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 종교적 해석이다. 이 두 종류의 해석이 첨예한 대립을 이룬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먼저 해석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해석은 세계관과 직결된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팩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진다. 여기서 진리란 팩트(Fact)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대한 해석 문제'라는 관점이 나온다. 동일한 팩트도 해석에 따라 진위가 달라진다. 자연 재앙이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계관에 의해 재앙에 대한 해석의 다름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계관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제에 의해 나타난다. 자연 재앙의 제1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원인을 찾는다. 과거 18세기 이전에는 유신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판세는 뒤집혔다. 종교적 해석은 미신으로 치부됐다. 오로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애석하게도 과학적 해석이 신앙적 해석을 저급하게 보는 태도는 신학과 과학의 역할을 오해한 데 기인한다. 흥해가 갈라졌다고 하자.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의 목적을 위해 가르셨다고 한다. 과학은 이런 목적과 동기는 말해주지 못한다. 단지 어떤 물리적 방식으로 갈랐는지를 증명할 뿐이다. 신학은 'What'(무엇/왜)에 대한 대답을 준다면, 과학은 'How'(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줄 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울한 현상이 있다. 신앙인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앙을 'How'의 문제로만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What'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 영역을 자연인들처럼 '우연'에 맡긴다. 이렇게 되면 '유물론'이 될 뿐이다. 기독교와 유물론의 차이는 과학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과학을 'How'의 영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제1원인'으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기독교는 과학을 'How'의 관점에서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How' 이전에 'What'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접근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칼빈도 제네바에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 재앙이 닥칠 때,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다. 회개만

선포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원인을 찾고 치료책도 강구했다. 과학적인 안목 없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현상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제1 원인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법칙과 '협력'하여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보았다. 이것을 카이퍼와 바빙크는 '섭리'라고 했다. 세상을 보존과 통치와 협력의 요소로 보는 것이 신앙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관점을 소유한다.

작금의 세계적인 재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보다, '왜'라는 신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 고민은 성경(계시)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특권이다. 우연은 없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앓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마10:29)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미신이 아니다. 여기서 신자는 사건들을 보면서 'How' 이전에 'What'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등대가 된다.

역병

작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은 역병이다.

Pestilence, 총 49회(47+2),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각한 질병
출5:3, 환난기(마24:7; 눅21:11)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해석: 역병 혹은 전염병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성경 대상 21장: 지도자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행13:22)

죽을 고생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 왕조 형성, 메시아 계보

말년에 실수를 범함, 자기가 이룬 업적을 눈으로 확인하려 함, 그래서 인구 조사 실시(21:1)
1절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요압 등 신하들의 반발(3),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함(7)

다윗의 양심의 가책(8)

하나님의 심판, 갓을 보내심, 세 가지 초이스(12), 3년 기근, 원수들의 칼, 역병
그런데 갓은 역병을 주의 칼이라고 부른다(12).

다윗의 대답(13),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14), 70,000명 사망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병은 대부분이 국민의 우상 숭배 혹은 지도자의 교만에 대한 심판

중국 우한 폐렴

우리는 이번 전염병 확산이 인간의 실수임을 인정한다: 중국 사람들의 비위생적인 식습관, 박쥐 식용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다.

무슨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우한 폐렴과 우한, 우한 선교사 보고, 책 읽는 사자, 코람데오, 구글 <우한 종교 정책 시험지>

우한 호복성(5,000만), 중심도시(1,000만)

우한 ** 교회 신도 400명 안에만 해도 폐렴 증상 혹은 유사 증상을 겪고 있는 신도들이 2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확률만 보아도 우한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간호사)만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병원에 병실이 없어 고열 등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도 병원에 진료도 받을 수 없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면역력으로 집에서 투병중입니다.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며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중략)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철거,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 주석 초상 걸게 함, 예배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 넣음, 교회집회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지도자 수감 등),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한이 기독교 탄압의 시범 도시, 수많은 교인들 박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시진핑 정권 아래 기독교인 핍박 급증”

2018년 3월 11일, 시진핑 사실상 '종신집권'...기독교 박해 우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주석의 최대 임기는 10년으로 시주석은 2013년에 당선돼 현 체제 아래에서는 2023년에 국가주석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당국은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몽' 실현도 가능하다는 태도다.

시진핑 주석의 개헌 발표가 있자, 국제 기독교연대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 기독교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주석은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임할 수 있게 된다"며 "시 주석은 특히 종교 단체의 단속과 규정을 강화시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중국은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한화로 328만~328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탈북민 선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들은 무더기로 추방됐다. 중국당국은 또 수천 개의 교회 옥상에서 십자가를 강제 철수한 것으로 모자라 산시 성 지방의 한 교회를 폭파방식으로 철거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8.05.17.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집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것조차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주택은 철거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그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이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공식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설립자 밥 푸 목사(Bob Fu)는 "시진핑 주석의 정권 아래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 주석의 종신 집권 선언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숙 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다시 시작된 박해의 파도'라고 불리는 핍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목회자들은 체포되고 십자가와 교회들이 철거됐으며 기독교인 인권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납치, 협박, 고문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자유를 위해 거침없는 활동을 펼쳤던 인권 변호사 리바이광 박사(Li Baiguang)가 그 예"라며 "그는 납치되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체포된 기독교 목회자들을 변호하며 인권 수호 변호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던 리 변호사는 지난 2월 난징의 인민 해방군 81번 군축병원에 위장 장애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 49세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사망 전까지도 매우 건강하던 그가 간부전으로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리 변호사의 부검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서둘러 시체를 화장했다. 리 변호사는 정부에 땅을 빼앗긴 농부들을 변호하다가 2017년 10월 저장성에서 납치돼 폭행당하고, 사지를 찢어놓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정부에 등록된 교회에도 강화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조차 안면인식 카메라의 설치와 교회를 감시하는 공산당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이미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단지 '천로역정'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악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기독교 박해 필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유토피론, 인간을 물질로 본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사회의 부속품으로 규정함, 국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컨트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박탈, 종교는 아편이다. 우리는 절대로 시진핑의 중국몽을 꾸거나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한반도를 보라.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해방, 약 75년 지남

중국몽을 꾸 북한 세계 최빈국, 강대 국가, 테러 국가. 다 평등하다. 가장 못 산다.

상위 2-3%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자유를 다 빼앗아 간다.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함께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없다.

지난 5000년 역사: 한상 중국의 속국, 지배, 침략

유일하게 지난 75년만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남,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중국의 문화, 전통,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용이 지배하는 나라

4.15 총선: 당, 종교, 지연 혈연, 학연 무시, 대한민국 헌법 존중하는 후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지원하는 후보, 친미 반중해서 국가 경제 안보 외교를 강성하게 하는 후보, 동성애 낙태 반대하는 후보

우리가 할 일

앞으로 우한 폐렴 같은 역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짐(컴퓨터, 인공 지능, 유전 공학)

핵심: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주 최초의 죄, 인간 최초의 죄

이런 자연 재해: 크리스천 넌크리스천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항공 여행: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암4:12),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손도 닦고 마스크도 하고 가능하면 나가지도 않고 숨어서 지낸다. 육신에는 도움

가능하면 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의 영원 상태에 대해 경고를 주고자 한다.

예수님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눅12:16-21), 공간을 더 짓기로 함

하나님의 말씀(20): 아무리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살아남아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결론(21):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나의 영원한 종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한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명이 끝나면 나도 끝인가?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